

##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10월 1호

## ◆ 번역 기사

1. 광저우항, 대외무역 정기선 항로 120개로 늘어나  
广州港外贸班轮航线达到120条
2. 광둥성 난사항, 중앙아~광저우~동남아 복합운송 서비스 개시  
中亚班列货物首次从广州南沙出海 打通出海物流新通道
3. 국경절 및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여객수송량 6,211.5만명 기록  
交通运输部：国庆中秋假期日均发送旅客6211.5万人次
4. 교통운수부와 수리부, 장강 주류 수로 준설사 종합 이용관리 강화 위한 지도의견 발표  
交通运输部和水利部印发指导意见 加强长江干流河道疏浚砂综合利用管理
5. ZPMC, 친저우항과 터미널 완전자동화 계약 체결  
振华重工签订北部湾钦州港全自动化码头项目合同
6. Ningbo Zhoushan Port Group, 발레 인터내셔널과 합자회사 설립  
淡水河谷与宁波舟山港集团建立合资公司
7. 양산항, 첫 항만 간 국제선박 bunker링사업 개시  
全国首单跨港区国际船舶供油业务落地洋山港沪浙联手

## ◆ 기타 동향

8. BIMCO, 홍콩을 네 번째 해상중재지로 지정  
BIMCO指定香港为第四个仲裁地  
[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40294](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40294)
9. 푸지엔성, 연안 컨테이너 익스프레스 운송서비스 개통  
福建沿海集装箱穿梭巴士正式开通  
[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40262](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40262)
10. 잉커우항, 자체 최대 규모의 선석 개조공정 정식 착공  
营口港迄今为止最大泊位改造工程正式开工  
<http://www.zgsyb.com/news.html?aid=570724>
11. Ningbo-저우산항, Sea & Rail 서비스 지역 15개 성, 56개 도시 포함  
宁波舟山港海铁联运业务范围涵盖15个省份56个城市  
<http://www.zgsyb.com/news.html?aid=570707>
12. 알리바바 디지털물류플랫폼 연간 4,000억건 소포 처리 가능  
阿里巴巴全球智能骨干网一年处理超400亿包裹  
<https://tech.sina.com.cn/i/2020-09-29/doc-iivhvpwy9518219.shtml>
13. 산둥성, 중국 북방 항만 중 최다 해운노선 확보  
山东航线数量和密度稳居我国北方港口第一位  
<http://www.zgsyb.com/news.html?aid=571070>
14. 중국, 호주 석탄 수입 돌연 금지  
突发！中国已下令停止从澳大利亚进口煤炭  
<http://m.sol.com.cn/cysc-detail.asp?/3315.html>

작성자 : 장형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mailto:kmishanghai@naver.com) / +86-21-6090-0395)

## 광저우항, 대외무역 정기선 항로 120개로 늘어나

- 2020년 10월 6일 광저우항그룹(广州港集团)에 따르면, COSCO의 CME 아시아 노선이 난사항에 첫 개통됨에 따라 광저우항의 국제무역 정기노선은 120개로 늘어남
  - CME 노선은 COSCO, OOCL 등 4개 선사가 공동 운항하며, 난사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시구당, 포트 클랑과 페낭항을 연결하는 수출입 직항 서비스 노선임
- 광저우항그룹 관계자는 CME 노선의 개통으로 향후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협력 촉진이 예상된다고 밝힘
  - 광둥성 기업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교역루트가 보다 다양해지고, 광둥성은 의류 및 가전제품은 수출시장 확대와 더불어 목재 및 재생펄프 수입 수요 충족 또한 가능해짐
- 올해, 광저우항은 경쟁력 있는 대외무역 통관 환경을 구축하고, 코로나19 및 복잡한 경제 상황 등 악조건 속에서도 9개의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를 증설하였음
  - 광저우항은 화남 및 서남지역을 연결하는 관문항의 하나로, 현재 광저우항 전체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는 총 165개에 달함
  - 광저우항의 컨테이너 정기선 네트워크는 120개 국제무역 정기선 노선과 69개 ‘서틀 익스프레스’ 바지선 노선 및 11개 Sea & Rail 복합운송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광저우항은 중국 화남지역에서 아프리카 노선이 가장 밀집한 허브항으로, 개통된 22개 아프리카 항로는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등지의 모든 항만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광저우항은 또 새로 설립한 동남아 사무소를 통해 아시아의 ‘일대일로’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만 현재 100개 이상임

(中华航运, 2020. 10. 9.)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0/t20201009\\_1344056.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0/t20201009_1344056.shtml)

## 광둥성 난사항, 중앙아~광저우~동남아 복합운송 서비스 개시

- 2020년 10월 7일 광저우항그룹은 중앙아시아열차를 통해 수송된 21개의 컨테이너가 광저우항 난사항구 2기 터미널에서 선박에 선적되어 인도네시아로 수송되었다고 보도함
  - 이는 광둥-중앙아시아 화물열차와 연계한 첫 ‘철도-바지선 운송-해운’ 복합운송 서비스로, ‘중앙아-광저우-동남아’ 출해 물류루트의 신규 개통을 의미함
  - 이번에 수송된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된 칼륨비료로, 무게 1,113톤에 화물 가치는 약 12.8만달러임
  - 광저우항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4만톤 이상의 우즈베키스탄산 칼륨비료가 동남아 바이어들에게 공급되고 있다고 함
- 상기 화물은 우즈베키스탄 Chukursay에서 열차로 광둥성 둥관(东莞)시 따랑(大朗)에 수송된 후 보세운송(트러킹)으로 광저우 자오신(滘心) 터미널 부두로 이동, 다시 자오신 보세창고에서 바지선을 이용해 난사종합보세구로 옮겨져 해상으로 최종 목적지에 수송됨
  - 이 과정에서 난사항종합보세구에서는 철도용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을 적출해 해운용 컨테이너에 다시 적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광저우 난사항은 중앙아시아 화물열차와의 상호 보완관계를 활용한 복합운송 서비스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역에 보다 많은 국제물류 루트 선택 가능성을 제공함
  - 광저우 세관은 중앙아시아 화물열차로 수송된 화물이 항공 및 해운과 연계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기업 스스로 통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관 신고 횟수를 줄여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 난사항은 향후 목재, 냉동제품, 플라스틱, 식품 등 화물을 처리하는 터미널을 구축해 중국 내륙 지역을 해외로 연결하는 허브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임
  - 난사항은 광둥~홍콩~마카오를 잇는 웨강아오지역(Greater Bay Area)의 중심에 위치하며, 주강삼각주의 주요 화물 배후지와도 인접해 있음
  - 또한 항만과 철도, 고속도로 및 내하 등 입체적 교통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독특한 강-해상 및 해운-철도 연계운송의 장점을 보유함

(中华航运, 2020. 10. 9.)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0/t20201009\\_1344055.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0/t20201009_1344055.shtml)

## 국경절 및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여객수송량 6,211.5만명 기록

- 2020년 10월 8일, 교통운수부는 올해 국경절 및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방역 이래 처음으로 있는 장기연휴로 전국 교통운수업계가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운영되었다고 밝힘
  -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철도, 도로, 수로, 민간항공 이용객 일평균 연인원은 6,211만 5,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10월 1일 하루 전국 철도, 도로, 수로, 민간항공 총 이용객은 6,586만 2,300명으로 올해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
  -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도로망의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음
  - 한편, 10월 1일~8일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유동량은 4,766만 6,200대로 전년 동기 동시간대보다 4.69% 하락했으며, 이중 연휴 피크기간이었던 10월 1일이 5,301만 5,800대를 기록하며 지난 해 국경절 연휴 최고치(5,256만 9,200대)보다 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교통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의 고속도로 운행은 ‘1증2락’의 특징을 보임
  - ‘1증’은 화물차량이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것을 말하며, ‘2락’은 고속도로 일평균 유동량이 다소 하락한 것과, 톨게이트 병목현상이 대폭 줄어든 것을 말함
  - 10월 1일~8일 전국 여행객은 연인원 3억 7,900만 명(일평균 4,737만 명)으로 지난 해 국경절 연휴의 평균 여객 수송량에 비해 30.93% 감소함
- 수로 운송의 경우,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수상 여객수송 인원이 736만 3,000명(일평균 92만 명)으로 동기대비 53.28% 하락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中华航运, 2020. 10. 9.)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0/t20201009\\_1344048.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0/t20201009_1344048.shtml)

## 교통운수부 및 수리부, 장강 주류 수로 준설사

### 종합 이용관리 강화 위한 지도의견 발표

- 교통운수부와 수리부는 최근 토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장강 주류 수로의 준설사 종합적 이용관리 강화 지도의견’ (이하 ‘지도의견’) 을 발표함
  - 최근 몇 년간 모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강, 하천, 호수의 토사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토사 공급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음
  - 이에 장강 주류 하천의 준설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한 층 더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도의견’ 이 마련됨
- ‘지도의견’ 은 시진핑 주석의 장강 경제벨트 발전의 중요 담화 내용을 깊이 관철하고, ‘생태 우선, 녹색발전’ 의 이념을 확고히 하며, 장강 수로와 항로의 안전 범위 내에서 준설사의 종합적 이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 또 정부가 주도하고 각 부처간 공동으로 통일된 규범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준설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함
  - 준설사의 종합 이용은 여러 부처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각 관련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준설사 이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고효율, 안전성, 규범성을 확보토록 함
- ‘지도의견’ 은 또 준설사 이용 절차를 규범화하고 현장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장강 주류 관리 범위 내에서 수로 및 항로의 공사와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합법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장강 하천 수로와 항로 공사 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육상에서 이용하는 경우 관련 성급 수자원 행정 주관부서가 성급 정부에 준설사 처리 방법 제정안을 제청하여 실시하고 또한 준설사를 빙자한 하천의 모래 채취 허가 및 공사를 빙자한 모래 채취를 근절할 것을 요구함

(中华航运, 2020. 10. 12.)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0/t20201012\\_1344069.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0/t20201012_1344069.shtml)

## ZPMC, 친저우항과 터미널 완전자동화 계약 체결

- 2020년 9월 30일 ZPMC와 베이부완항그룹(北部湾港集团)은 친저우(钦州)항 터미널 완전자동화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
  - 이번 프로젝트는 친저우항 다란핑(大榄坪) 남측터미널의 7번, 8번 컨테이너 선석을 자동화 선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해 ZPMC는 더블 트롤리 QC 5기, 자동화 더블 캔틸레버 RMGC 16기, AGV 30대와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스마트 제어시스템 및 프로젝트 통합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임
  - ZPMC는 더블 트롤리 QC OCR 슬라이드 레일 기술, 자동화 더블 캔틸레버 RMGC 및 8륜4축 베이스 형식의 AGV 등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 자동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두 건설 및 운영 원가를 대폭 절감할 예정이며, 세계 최초로 U자형 야드 공법을 적용할 계획임



- 친저우항 완전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은 총 4개의 선석을 포함하며, 안벽 길이는 1,302m, 연간 하역능력은 260만TEU로 총 71억위안이 투자될 예정임
  - 친저우항 완전자동화 리모델링 프로젝트 두 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2022년에 운영될 예정임
  - 2단계까지 완공되면 친저우항은 중국 최초의 Sea & Rail 복합운송 자동화 터미널 및 중국 두 번째의 20만톤급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가 될 전망이다

(龙de传人, 2020. 10. 7.)

<https://www.imarine.cn/thread-729186-1-1.html>

## 닝보저우산항그룹, 발레 인터내셔널과 합자회사 설립

- 최근 브라질 발레(Vale)사의 자회사인 발레 인터내셔널(Vale International S.A.)과 저장성해항 투자운영그룹(浙江省海港投资运营集团), 즉 닝보저우산항그룹(宁波舟山港集团)의 자회사인 닝보저우산항주식유한회사(宁波舟山港股份有限公司)가 저우산시 수량후(鼠浪湖) 터미널 서3구(西三区)에 대한 BOT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합자회사를 설립함
  -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발레사는 수량후 터미널에서 연간 4천만톤의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돼 전체 공급사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3구 프로젝트는 토지사용권을 비롯하여 두 개의 선석(처리능력 2천만톤)과 야적장 건설을 포함하며, 총 투자액은 43억위안(약 6.24억달러, 지분 100%)임
  - 발레사는 합자회사의 50% 지분(출자금액 1.09~1.56억달러)을 보유하며, 양측은 총 투자액의 50%~65%를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임
  - 프로젝트는 관련 규제 당국의 승인을 획득한 후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건설기간은 3년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레사는 발레막스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선량후 터미널의 하역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철광석의 해운 및 유통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됨
  - 발레사는 2015년 브라질 북부 카라자스 지역의 철광석과 남부 및 동남부의 철광석을 혼합한 중품위 철광석 BRBF(Brasil Blend Fines) 제품을 출시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블렌드 기지 및 수량후를 포함한 17개 중국 항만에서 BRBF를 생산하고 있음
  - 이들 블렌드 기지의 활용을 통해 발레사는 BRBF를 아시아로 운송하는 시간을 단축했으며, 또한 소규모 선박을 이용해 아시아 역내 유통능력을 향상시킴
- 닝보저우산항주식유한회사는 연간 화물처리량 기준 연속 11년 중국 1위를 차지한 닝보저우산항 운영사로 중국 대형 터미널 운영사 중 하나임
  - 주로 컨테이너, 철광석, 원유, 석탄, 액화유류제품, 곡물 등의 하역 및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닝보저우산항에 40만톤급 광석선이 접안 가능한 선석 2개를 보유하고 있음
  - 발레사와 닝보저우산항주식유한회사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다수의 전략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航运界, 2020. 10. 12.)

[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40309](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40309)

## 양산항, 첫 항만 간 국제선박 벙커링사업 개시

- 2020년 10월 4일 상하이 양산항 상둥(尚东)터미널에서 대형 국제컨테이너선 '산타로 바네사 (Santa Rovanesa)'호가 총 5시간에 걸쳐 저황보세 선용 연료유 1,000톤을 공급받음
- 이번 연료유는 저장자유무역시험구의 저장해항국제무역유한회사(浙江海港国际贸易有限公司)가 공급한 것으로, 이를 위해 저장성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급유선이 양산항까지 운항함
- 이번 벙커링은 서로 다른 항만 간에 이루어진 첫 국제선박 벙커링 사업으로, 양쯔강삼각주 항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제선박 입장에서선 벙커링 업체 선택옵션이 보다 다양해짐을 의미함
- 또한 상하이와 저장 두 지역 입장에서선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된 해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하이국제해운중심 및 양쯔강삼각주 항만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Ningbo Zhoushan 국제 벙커링 대형 항만 입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저장성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상하이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이며, Ningbo Zhoushan은 세계 벙커링 항만 순위 10위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두 항만간 협력은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밝힘
- 이번 사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상하이 및 저장성 정부가 여러 차례 연구와 조정을 통해 두 자유무역시험구 간 선박해사감독관리모델 최적화, CIQ 절차 간소화 등, 항만간 벙커링 업무절차 및 감독관리 방안 최적화 등에 노력한데 있음
- 한편 SIPG, 저장해항그룹 및 저우산항종합보세구 측은 첫 번째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절차를 반복적으로 체크함
- 다음 단계로 상하이와 저장성 정부는 항만 간 벙커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동 사업을 정규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예를 들면 항만 운영허가 절차의 경우 그동안 각 지역 교통 해운항만 부문에서 해당 지역 업체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타 지역 업체도 통제받은 상화에서 특별 허가를 허용할 예정임

(浙江省人民政府, 2020. 10. 5.)

[http://www.zj.gov.cn/art/2020/10/5/art\\_1229278448\\_590191111.html](http://www.zj.gov.cn/art/2020/10/5/art_1229278448_590191111.html)